

[종합]

“북한 일방 압박보다 햇볕 정책이 효과적”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한반도 평화’ 제언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15일~17일)’ 참가자들은 남·북한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보다는 평화적인 햇볕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광주정상회의 국제학술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남북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국민은 물론 전 세계적인 노력과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1947년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인 미

국 캐이커 봉사위원회의 사무총장 메리 앨렌 맥니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이 주창한 햇볕 정책의 성공은 평화적이고 단합되며,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의 잠재성을 세계에 알렸다”면서 “2000년 6월15일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6년간 양국은 평화를 위한 서로 간의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 미국은 한국의 햇볕 정책에 해를 입히는 한편 북한을 압박하고 악으로 지

독함에 따라 북·미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또 남북의 평화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변화하도록 세계 기구와 지도자들이 협조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노르웨이 전 총리인 ‘셸 마그네 분데빅’은 ‘분단국가-세계 공동의 미래’를 통해 “한국의 햇볕 정책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한반도 통일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노력은 물론 전 세계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노벨평화상수상자 정상회의’ 오늘 개막

DJ·고르비 내일 ‘한반도 평화’ 특별연설

참가자 14명 속속 도착 분위기 고조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국내외 평화·인권운동가가 한 자리에 모여 5·18정신의 확산과 한반도 평화를 모색할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가 15일 대안당의 막을 올린다. 지난 13일 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 ‘쉬린 에바디’가 광주에 도착한 데 이어, 14일 영국의 평화운동가 ‘모리리 코리건 맥과이어’, 케냐의 환경운동가 ‘왕가리 마타이’, 반핵단체인 파그위시 컨퍼런스 사무총장 ‘파울로 코타 라우시노’ 등 세계 평화의 사도들이 속속 광주에 도착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15일 오후 6시 담양관광호텔 대연회장에서 14명(단체포함)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국내외 1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 주최로 ‘현영리셉션’이 열린다. 16일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이번 행사의 공동

의장인 고르바초프 옛 소련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각각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증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특별 기조연설을 하며, 지미카터 전 미국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코피안 전 UN사무총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

카터·코피안 영상메시지

를 위한 영상메시지를 전달한다. 16일 오후부터 17일 오전까지는 5·18민주화 정신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확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이어지며 행사 마지막날인 17일 오전 15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평화를 위한 광주선언이 채택된다. 또한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노벨평화상수상자와 전국대학생들간 토론회(17일 김대중컨벤션

세계 평화 ‘광주선언’도

센터)와 국제인권운동가 사진전(9일~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이란 여성인권운동가 쉬린 에바디의 여성단체 특별강연(16일 여성발전센터)이 별도로 진행된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광주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을 기념하는 방법 모색과 핸드프린팅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별도의 기념조형물을 설치해 이를 보관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 조형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14일 회의장인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 행사를 알리는 꽃탑이 설치되는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위희림기자 jrwi@kwangju.co.kr

초·중·고, 저출산·고령사회 교육

조달청장 김용민씨 내정

과목별 매년 1~2시간씩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교육이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등학교당 12시간씩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관련 과목별 매년 1~2시간씩 교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

난해 함께출산율이 1.08명에 그친 데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급가속화하고 있는 데 따른 대비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과서 개편지침’을 보고받고 이 같은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키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공석중인 조달청장에 김용민(54) 재정부 세제실장을 내정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신임 김 청장은 부산고 경재학과를 졸업하고 행사 17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세제실장 등 금융과 세제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영록씨

공석중인 전남도 행정부지사 후보관리관(2급)으로 근무중인 김영록(51)씨가 내정됐다. <관련기사 6면>

전남도는 14일 송광문 전 부지사의 부구청장 선거출마로 공석이 된 행정부지사에 김씨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전남도의회 사무처장, 도 자치행정국장, 목포 부지사, 도 경제통상국장, 관선 원도·감진 군수 등을 역임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앰네스티, 31년간 인권·민주화 견인차”

광주시민들 ‘국제시민의회’ 참가 환영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에 수상자 자격으로 참가하는 7개 단체 중 한국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단체는 국제시민의회(Amnesty International)다. 이는 광주 앰네스티가 지난 31년 동안 광주 인권과 민주화 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 광주지부(이사장 위인백)는 지난 1974년 이기흥 변호사를 비롯한 광주의 뜻있는 민주인사들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시작됐고, 본격적인 활동은 77년 12월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 광주지부가 창립되면서 부터다.

‘광주 인권의 어머니’인 조아라 여사 등을 창립멤버로 출범한 국제앰네스티 광주지부는 유신 독재시절을 거쳐 지난 80년 광주항쟁 당시 회원 50명 중 무려 36명이 옥고를 치르거나, 수배당하는 등 질곡의 역사를 함께했다. 이 단체에 참가했던 회원들은 흉남순 변호사, 고영근교수, 박석무 5·18재단 이사장, 송기숙 전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조비오 신부, 강신석 목사, 문병란 교수 등 광주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들이다. 광주 앰네스티는 지역 단위 앰네스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해 지역 단위 지부들이 80년대 군부독재 시절 모두 해체된 뒤, 대부분 90년대 후반에서야 재건된 반

면 광주 앰네스티는 80년 당시 회원 36명이 옥고를 치렀던 빛겨울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한국 유일의 앰네스티다. 광주 앰네스티는 유신시절 민주화운동을 비롯 5·18항쟁 참가, 양심수 석방 운동, 고문 추방 운동, 사형제도 폐지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등 시대를 앞서가는 인권운동을 펼쳤다. 위인백 국제앰네스티 광주지부 이사장은 “광주 앰네스티는 암울했던 유신시절 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던 유일한 단체였다”면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의 광주 개최와 국제앰네스티의 광주 행사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광주 앰네스티는 광주정상회의를 축하하는 한편 국제앰네스티 대표단의 광주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행사장 주변에 내거는 환영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Manwa) by Kim Jung-woo. It features a drawing of a person looking at a screen with the text '보고도 모르겠다' (I don't even know) and '대-한민국' (Great Republic of Korea).

Advertisement for '광고접수안내' (Advertisement Reception Guid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u.

Advertisement for '무담보 긴급자금' (No collateral emergency fund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loan terms.

Advertisement for '시설공사입찰공고' (Facility construction bidding notice) with details on bidding procedur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상속한정승인공고' (Succession limited approval notice) with legal notice details.

Advertisement for '무담보 긴급자금' (No collateral emergency fund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loan terms.

Advertisement for 'KEI1 천안부동산연구원' (KEI1 Cheonan Real Estate Research Institute)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Hiking guide) with details on hiking rout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Hiking guide) with details on hiking rout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Hiking guide) with details on hiking rout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부동산정보매일' (Real estate information daily)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Large advertisement for '노랑진 올스타 교수진 출강' (Norangjin Allstar Professors Lecture) with details on the schedule and contact information.